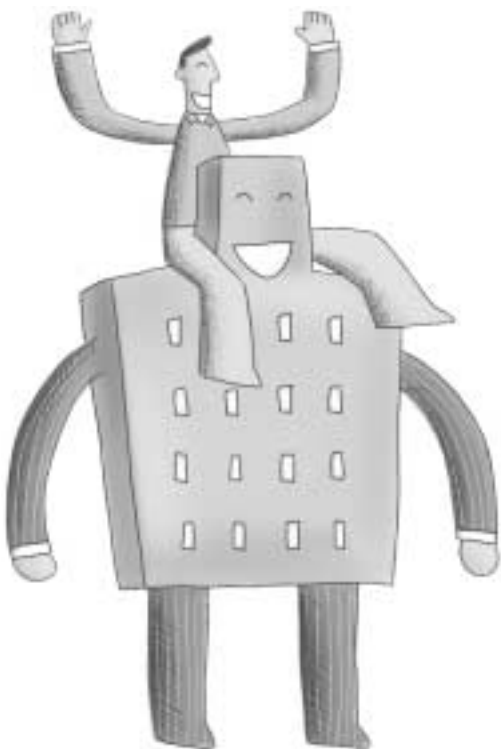


제 09 장

여성의 고용구조와 특성

서정희*

1. 서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다.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 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마. 선진국과의 비교
3. 여성의 취업구조
 - 가. 산업별 취업자 분포
 - 나. 직업별 취업자 분포
 - 다.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분포
 -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 마.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4.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 가. 성별 직종분리
 - 나.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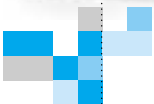
※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TEL : 02)2629-7132
E-mail :
thatstar@hrdkorea.or.kr

1. 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여성근로자들의 노고는 전반적으로 남성 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 등의 여건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문화적 규범도 급속하게 변화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성 평등과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많은 제도의 제정 및 개선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해체, 여성의 고학력화, 핵가족화 및 이혼율 증가 등 사회구조적 변화는 성 평등 의식을 확산시켰고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취업현황은 의식구조의 변화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48.9%로 절반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성 분리 구조인데, 남성은 고생산성·고임금·고용안정의 직업계층 상층부를 차지하고 여성은 저생산성·저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인력 활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는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고학력 여성인력이 여전히 취업하지 않고 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비정규근로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경력경로를 갖는 불안정한 고용층을 형성하는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핵심인 21세기에 직업의 성 분리 구조타파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여겨진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학력의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들 전문직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힘, 체력보다는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시되므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때 능력있는 여성인력의 확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현재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일하는 여성이 주류가 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1절 서에 이어 2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주도가 여성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을 통하여 설명하고 3절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직업



별, 사업장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분포와 노동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성별 직종분리와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마지막 5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여성의 고용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인력의 활용방안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으로 2003년 현재 48.9%를 기록하고 있다. 1963년 37.0%에서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 49.5%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여성의 진출이 크게 위축되어 1998년 47.0%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꾸준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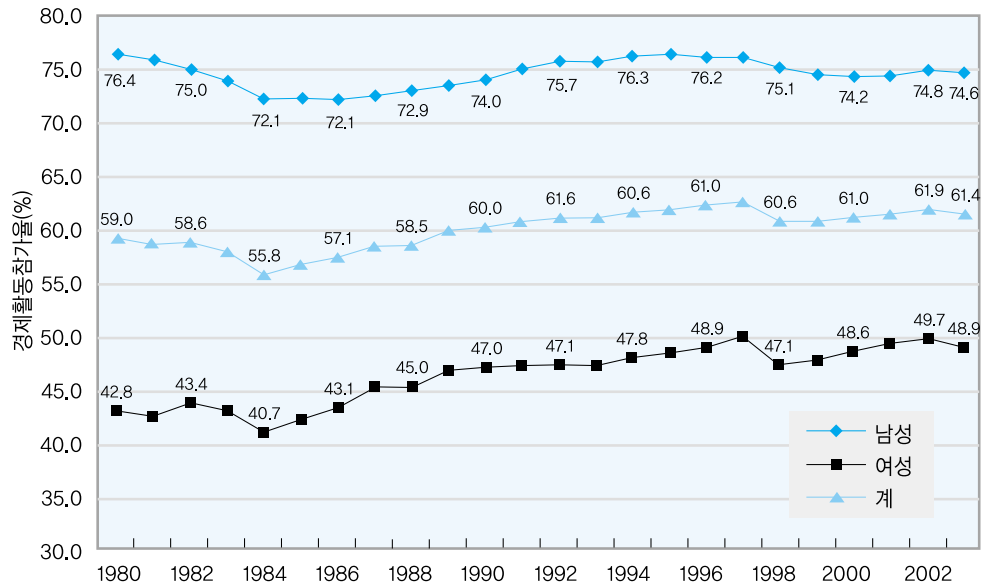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인력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여성인력의 공급 여력이 상당정도 있다는 것으로 이들 잠재인력이 실질적인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9-1>과 같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점차 하락하다가 1990년대 중반 76%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은 1998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관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불가역적인 현상(irreversible phenomenon)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처럼 꾸준히 증가함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불가역적인 증가는 성별 역할구조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여 왔던 결혼과 동시에 남성은 직장이라는 공적 영역을,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대표하며 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사회규범 즉 성별 역할구조는 지난 20여 년간 강력한 도전을 받아 왔다. 여성의 전반적인 교학력화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가정과 직장을 성별 분리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공존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회규범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핵가족화,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 및 그와 관련된 규범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풍토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과거 20여 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기혼여성 이 주도해 온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황수경, 2003).



〈그림 9-1〉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 : 1980~20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참가율 격차는 1980년 33.6%포인트에서 2003년 25.7%포인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5세구간의 연령범주별로 살펴보면〈표 9-1, 그림 9-2〉,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연령별 구조는 20대 초반과 40대 중후반을 두 정점으로 하는 M형 쌍봉구조(bimodal structure)를 취하고 있다.²⁾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구조의 변화는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20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1990년대 후반 들어 대학재학 연령대인 20대 초반 여성의 참가율도 줄어들었다.³⁾

반면 2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여 년간 25%포인트 이상의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다. 그 결과 전형적인 쌍봉구조에서 오목한 부분이 다소 완화된다고 최저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바뀌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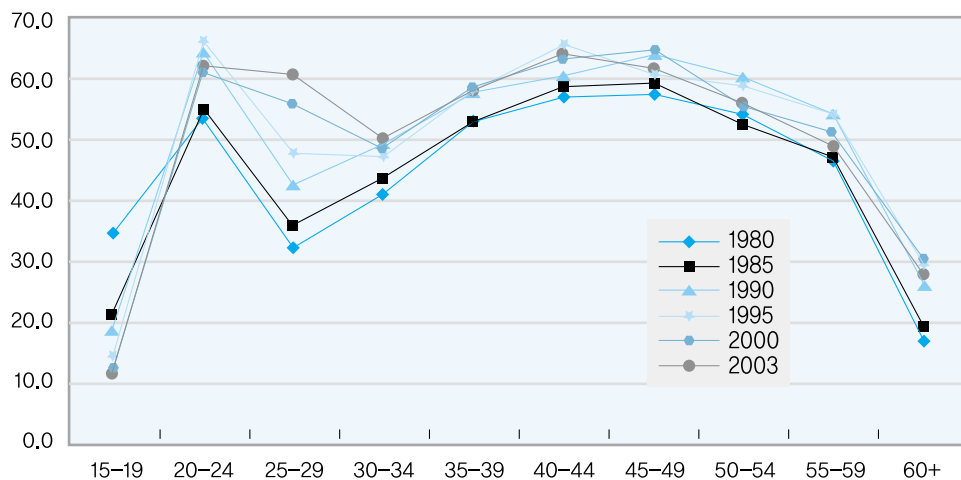
〈표 9-1〉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1980~2003

(단위 : %, %P)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0	34.4	53.5	32.0	40.7	53.0	57.0	57.3	54.0	46.2	17.0
1985	21.1	55.0	35.8	43.6	52.8	58.3	59.3	52.4	47.2	19.2
1990	18.7	64.6	42.6	49.5	57.9	60.7	63.9	60.0	54.4	26.4
1995	14.5	66.1	47.8	47.5	59.2	66.0	61.1	58.3	54.3	28.9
2000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29.8
2003	11.3	61.5	60.5	49.8	58.2	64.0	61.5	55.5	49.0	27.8
증감 ('90-'80)	-15.7	11.1	10.6	8.8	4.9	3.7	6.6	6.0	8.2	9.4
증감 ('00-'90)	-6.2	-3.8	13.3	-1.0	1.2	2.7	0.7	-4.8	-3.6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9-2〉 지난 20여 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구조 변화



2)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생애구조는 여성 참가율이 30%대에 머물던 1960년대 말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참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여수봉(1991), 28쪽[그림 2-1]과 [그림 2-2] 참조). 1970년대 이후부터 20대와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봉우리를 형성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60~70년대 여타 선진국들에서 나타났던 생애구조가 가시화되었다.

3) 지난 10년 사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대 초반 여성의 상당수를 취학계층으로 편입시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를 크게 감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 전문대학		고등학교 → 4년제대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90	95.0	96.3	30.8	32.5	12.5	11.2	18.3	21.3
2000	99.6	99.5	65.6	70.3	21.5	22.9	44.0	47.4
2003	99.7	99.7	79.1	80.4	21.7	20.1	57.4	60.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통계연보」



다.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표 9-2>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졸 학력자의 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9월 현재 61.6%로 중졸의 40.7%, 고졸의 51.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도 활발함을 볼 수 있다.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상응하는 직업을 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3년 9월 현재 여성의 학력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그림 9-3>, 초졸과 중졸 여성은 30~40대에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여 초졸의 30대 71.5%, 40대 68.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30~40대 고졸,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 격차는 50세 이후에서도 발견된다. 20대에서는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의 여성에 비해

<표 9-2> 학력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991. 9~2003. 9

(단위:%)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전 체
1991	53.7	39.0	49.1	59.0	49.1
1992	52.3	38.7	48.7	56.9	48.4
1993	51.1	40.8	48.8	57.7	48.7
1994	50.3	41.4	49.5	59.6	49.0
1995	49.6	41.5	50.4	60.3	49.4
1996	49.3	41.8	51.1	62.2	49.9
1997	49.0	41.2	51.5	63.8	50.0
1998	46.4	41.0	48.1	59.3	47.8
1999	47.8	41.9	49.1	59.7	48.9
2000	46.9	43.2	49.8	61.1	49.4
2001	46.3	43.4	50.6	61.6	49.7
2002	45.3	43.2	51.5	62.1	50.4
2003	42.3	40.7	51.1	61.6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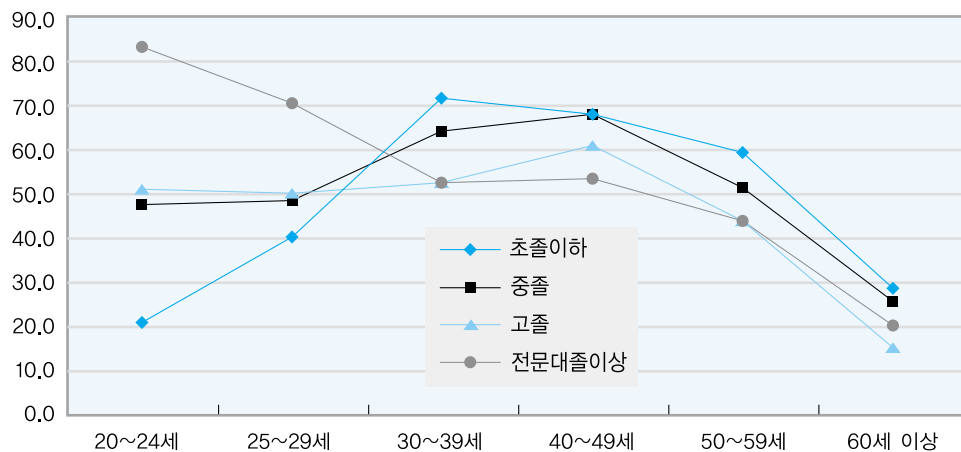
주 : 매년 9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4) 시간적으로 중졸 이상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1년 이후 학력과 상관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온 반면, 초졸 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초졸 이하 학력자의 고령화로 50세 이상 고연령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서 40대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60%정도이며,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은 20대 초반의 82.8%에서 20대 후반 70.2%, 30대 52.5%로 연령에 따라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9-3〉 여성의 학력별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2003



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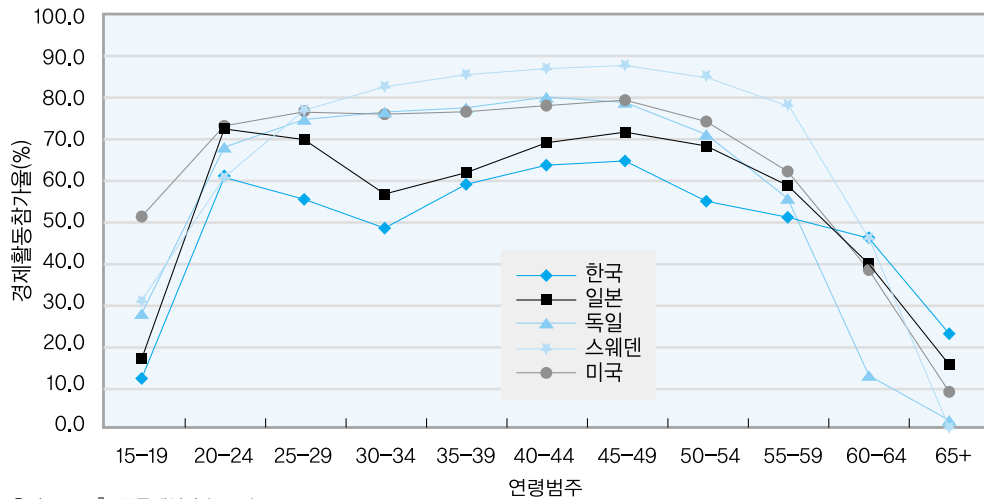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기혼여성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반 특징을 규정하는 것도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를 보여주는 쌍봉구조는,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까지 관찰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사라졌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쌍봉구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구조가 남성과 유사한 역U형을 띠기 시작하였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구조에 여전히 전형적인 M자형 쌍봉구조가 나타나고 있다(최강식 · 정진화, 1997; OECD, 2002)〈그림 9-4〉.

쌍봉구조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혹은 결혼 초기(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에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의 가사부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곤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일(market work)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non-market work)을 선택



〈그림 9-4〉 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999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2000).

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가사부담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 이들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취업을 희망한다는 의미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와 이와 관련된 성별 역할분담 구조가 만들어낸 여성노동시장의 왜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황수경, 2003).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분리하여 각각의 경제활동 상태를 「OES조사」의 3차년도 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9-3, 표 9-4).

우선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를 보면, 여성 취업자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혼여성은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보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가 점차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까지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나 40대 이후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그 중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 참여는 초졸 및 중졸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 경제활동의 질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대졸 이상의 경우 73.6%인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 고학력자와 고연령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의 대비를 확실히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보다 월

〈표 9-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2003

(단위 : 명)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전 체 ¹⁾		7,278,603	3,478,102	1,934,463	1,866,039
연 령	-24	27,362	24,005	2,570	787
	25-29	230,322	181,349	27,688	21,285
	30-34	673,488	469,835	106,539	97,115
	35-39	1,032,592	615,345	225,464	191,783
	40-49	2,619,052	1,291,389	714,433	613,230
	50-59	1,469,026	615,642	426,184	427,200
	60+	1,226,761	280,537	431,585	514,639
학 력	초졸이하	2,004,860	628,816	597,427	778,618
	중 졸	1,317,924	564,165	371,796	381,962
	고 졸	2,726,677	1,384,516	716,932	625,229
	전문대졸	305,269	212,236	62,070	30,963
	대졸이상	934,472	687,967	190,732	55,773

주 : 1) 전체는 연령항목의 합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표 9-4〉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 2003

(단위 : 명)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전 체 ¹⁾		1,790,481	1,650,093	118,667	21,721
연 령	-19	16,863	15,917	567	378
	20-24	530,012	513,605	11,322	5,085
	25-29	799,339	756,628	33,493	9,218
	30-34	289,354	254,311	30,902	4,142
	35-39	83,060	64,154	17,091	1,815
	40-49	57,757	38,034	18,639	1,084
	50+	14,096	7,443	6,653	0
학 력	초졸이하	12,826	8,554	3,554	718
	중 졸	19,172	14,807	3,652	713
	고 졸	586,060	530,700	45,697	9,663
	전문대졸	506,576	487,792	14,502	4,283
	대졸이상	677,291	619,479	51,467	6,345

주 : 1) 전체는 연령항목의 합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등히 높는데, 특히 20대 초반은 96.9%가 임금근로자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긴 하지만 50%는 상회한다. 또한 기혼여성과 달리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낮아 50대 이상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참여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높아져 중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7.2%이며, 전문대졸은 96.3%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의 경우 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경제활동인구의 한 축인 실업자의 특성⁵⁾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인하여 1960년대 초반 5~6%의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7년 최초로 1%대를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년 이상 1~2%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였다가 2003년 현재 3.1% 수준이다.

마. 선진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IMF 이전인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 값 68.2%보다 낮은 상황이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유럽연합 15개국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왔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6.7%인 반

5) 첫째, 실업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2대 1로 남성이 훨씬 많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1.6%(2001년)가 여성이라는 점과 대비되며, 실질적인 여성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학력별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저학력 여성 실업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고학력 여성 실업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저학력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반면 생계 목적 등의 취업욕구는 강하여 이들 계층의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생계목적의 취업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취업이 힘들거나 실질적 구직활동보다는 실망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이 높다. 넷째, 외환위기로 인해 30~40대 여성의 실업이 급증하면서 20대 청년층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30~40대 여성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구경제의 악화로 인해 생계목적으로 취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 미혼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아 40%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30~40대 여성 실업자의 증가와 맞물려 배우자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여섯째, 과거에는 여성 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대를 넘었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리하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7년 9월 24.7%에 불과하였던 비자발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은 1년 뒤인 1998년 9월 63.5%로 뛰어올랐으며, 2001년 9월에도 42.6%를 유지하여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1990년대 여성 실업자 중 前職 임시·일용직 실업자의 증가추세는 임시·일용직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관계있으며, 그 결과 전직 임시·일용직 여성 실업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취업자의 40% 정도가 비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전직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직시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실직의 위험성이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여덟째, 여성 실업자의 前 직장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산업별 취업자 비중과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서로 엇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던 여성 실업자의 비중은 취업자 비중보다 높은 편이다. 여성 실업자의 전 직장 직종분포를 분석하여도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였던 실업자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산업 및 직종에서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제기한다(금재호, 2002).

면, 유럽연합 15개국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값은 78.2%로 1.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금재호, 2002).

이에 대해 여성의 경우는 1997년 우리나라가 55.1%이었던 반면 유럽연합 15개국은 평균 58.2%로 3.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유럽연합 15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에 들어 하향 추세적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15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추이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15개국 여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990년대에 걸쳐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유럽연합 15개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1997년 3.1%포인트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1998년 6.1%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고, 1999년에도 여전히 6.1%포인트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9-5). <그림 9-6>은 OECD 평균치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표 9-5〉 유럽연합 15개국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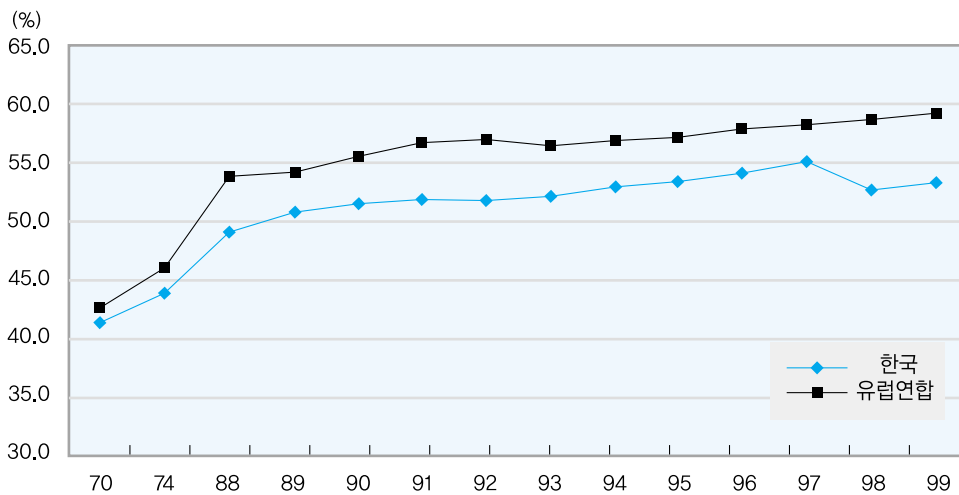
	전 체		남성		여성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한국	유럽연합
1970	57.4	66.3	73.4	90.6	41.3	42.5
1974	60.2	66.3	76.3	87.5	43.9	45.6
1988	60.5	66.9	72.1	79.9	48.8	53.6
1989	61.9	67.3	72.9	80.1	50.6	54.2
1990	62.4	68.0	73.3	80.7	51.2	55.4
1991	63.4	68.4	74.6	80.3	51.8	56.5
1992	63.7	68.2	75.2	79.5	51.8	56.8
1993	64.1	67.5	75.9	78.5	52.0	56.4
1994	64.9	67.5	76.5	78.3	52.9	56.7
1995	65.4	67.5	77.0	78.0	53.4	57.0
1996	65.6	67.9	76.9	78.1	54.0	57.6
1997	66.1	68.2	76.7	78.2	55.1	58.2
1998	64.7	68.5	76.5	78.2	52.5	58.6
1999	64.7	68.9	75.8	78.5	53.1	59.2
2000	64.2	69.4	76.9	78.6	51.8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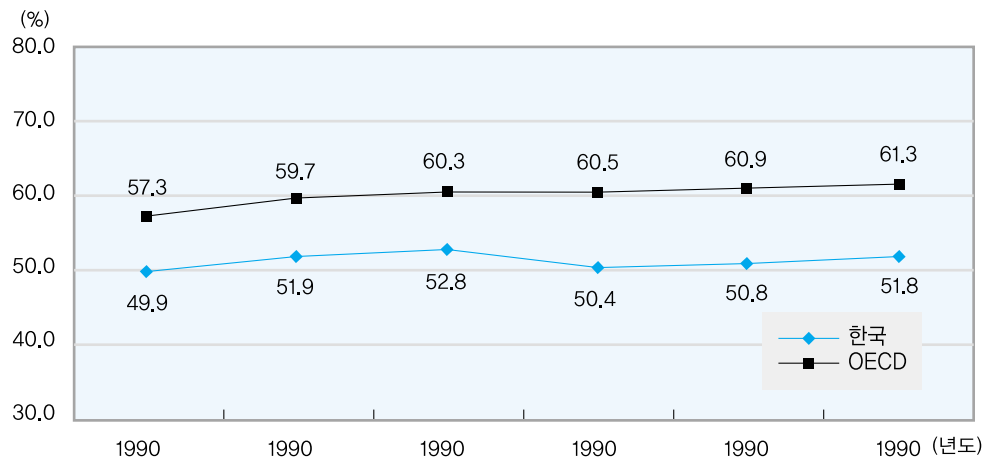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8%로 OECD 평균치 61.3%보다 거의 10% 가까이 낮은 값이며 특히 미국(70.8), 캐나다(70.5), 영국(68.9) 등의 주요 국가에 비해 17%포인트 이상 낮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 국 중 스페인(51.8)과 비슷하고 이탈리아(46.2)보다는 높다.

〈그림 9-5〉 유럽 15개국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 여성



〈그림 9-6〉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5~64세 기준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3. 여성의 취업구조

가. 산업별 취업자 분포

1990년대 산업별 취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분야의 취업자수는 509만 2,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그 절대수도 하락하였다. 1990년에 전체 취업자수의 27.2(여성은 28.1)%를 점유하였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낮아져 2001년의 경우 19.7(17.0)%를 기록하고 있다. <표 9-6, 표 9-7>과 같이 제조업이 외환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에 따라 취업자중 제조업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여 1998년에는 19.5(16.6)%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 및 절대수의 감소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발견되지만 여성의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여겨진다. 1990년부터 2001년의 11년 동안 제조업 취업자수는 71만 2,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들 중 여성이 56만 2,000명으로 감소인원의 78.9%를 차지하고 있다.⁶⁾

또한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수 및 취업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0년에 465만 4,000명이었던 취업자수가 2001년에는 절반 수준인 219만 3,0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동 기간 중 34.0(여성은 39.0)%에서 10.3(11.6)%로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는 일시적으로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수와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림어업 부문에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비중 및 취업자의 절대수가 하락하였고 그 하락폭도 남녀 모두 비슷하다.⁷⁾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 및 비중의 하락은 서비스 부문 취업자수 및 그 비중의 증가를 의미한다. 1980년에 43.5(여성은 38.7)%이었던 서비스 부문 취업자의 비중은 2001년 70.0(71.4)%까지 급속도로 늘어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표 9-6, 표 9-7>).

건설 부문의 취업자수도 1980년의 84만 3,000명에서 1997년에는 200만 4,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의 충격을 건설업 부문이 가장 크게 받음에 따라 취업자수는 한때 120만 명 수준까지 낮아졌고 2001년에는 157만 5,000명으로 외환위기 이

6) 1990년 제조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2.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의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0.6%포인트(28.1%→17.5%)하락하였으나 남성은 6%포인트(26.5%→20.5%)의 감소에 그쳤다.

7) 남성의 경우 1990년부터 9년 동안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28.4%(49만 4,000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26.4%(39만 4,000명) 감소하였다.



전보다 크게 낮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부문 취업자수의 비중도 1997년의 9.5%에서 2001년에는 7.4%로 하락하였다<표 9-6>.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에 51.5%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11년 뒤인 2001년에는

<표 9-6>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추이 : 전체

(단위 : %, 만명)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림어업	34.0	24.9	17.9	11.7	11.3	12.4	11.6	10.9	10.3
광공업	22.5	24.4	27.6	22.6	21.4	19.6	19.9	20.2	19.8
제조업	21.6	23.4	27.2	22.5	21.2	19.5	19.8	20.2	19.7
SOC 및 서비스	43.5	50.6	54.5	65.7	67.3	68.0	68.6	69.2	70.0
건설	6.2	6.1	7.4	9.5	9.5	8.9	7.3	7.5	7.4
도소매·음식숙박	19.2	22.6	21.8	27.1	27.5	27.9	28.2	28.2	27.2
전기·운수·금융	7.3	8.7	10.7	9.3	9.5	10.0	9.8	9.8	9.9
사업·개인서비스	10.9	13.3	14.6	19.8	20.9	22.3	23.3	23.4	25.5
전 체	100.0 (1,368)	100.0 (1,497)	100.0 (1,809)	100.0 (2,082)	100.0 (2,111)	100.0 (1,999)	100.0 (2,028)	100.0 (2,106)	100.0 (2,136)

<표 9-7>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추이 : 여성

(단위 : %, 만명)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림어업	39.0	27.8	20.3	13.6	13.2	14.6	13.3	12.5	11.6
광공업	22.3	23.2	28.2	20.3	18.4	16.7	17.4	17.5	17.0
제조업	22.1	23.2	28.1	20.3	18.4	16.6	17.4	17.5	17.0
SOC 및 서비스	38.7	49.0	51.5	66.0	68.4	68.7	69.3	70.0	71.4
건설	1.4	1.1	1.8	2.4	2.5	1.8	1.5	1.5	1.5
도소매·음식숙박	24.4	30.0	28.3	34.4	35.2	35.3	35.7	35.9	35.5
전기·운수·금융	3.1	4.4	6.1	6.6	6.7	6.6	6.1	6.3	6.3
사업·개인서비스	9.8	13.5	15.4	22.8	24.0	25.0	26.1	26.3	28.0
전 체	100.0 (522)	100.0 (583)	100.0 (738)	100.0 (847)	100.0 (869)	100.0 (808)	100.0 (830)	100.0 (871)	100.0 (890)

주 : () 안은 전체 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71.4%까지 상승하였다.⁸⁾ 동 기간 중 서비스업 종사자는 509만 2,0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성으로 나타났다.⁹⁾ 나아가 1990년에는 2001년까지 서비스업 종사 여성 취업자의 증가규모는 254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성 취업자의 증가폭 151만 9,000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¹⁰⁾

여성 취업자의 '서비스산업 집중화 현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취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하던 이들도 서비스업으로 대거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 특히 사업 및 개인서비스(공공서비스 포함) 산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1990년에서 2001년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이 넘는

〈표 9-8〉 전년대비 산업별·직업별 취업자수의 변화율 : 여성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 체		-6.6(2.7)	-4.2(1.9)	-0.4(1.4)	2.7(-5.3)	-6.8(1.4)	-1.0(3.8)
산 업 별	농림어업	-0.6(-5.9)	-2.4(-4.1)	-7.1(-1.8)	-15.8(4.0)	7.3(-5.3)	5.7(-2.6)
	광공업	-0.5(1.4)	-2.4(-2.3)	-7.1(-4.4)	-15.8(-13.1)	7.3(2.7)	5.8(5.9)
	제조업	6.2(1.7)	5.8(-2.2)	6.1(-4.5)	-6.4(-13.0)	3.6(2.8)	8.2(5.9)
	SOC 및 서비스	13.0(5.1)	9.3(4.6)	8.5(3.9)	-34.1(-4.3)	-14.7(2.3)	5.3(4.9)
	건설	3.3(6.7)	6.2(3.5)	5.0(1.7)	-6.6(-21.3)	3.8(-6.5)	8.5(7.2)
	도소매·음식숙박	7.1(3.1)	3.0(4.9)	4.0(2.9)	-7.1(-4.0)	-6.3(2.7)	5.8(3.8)
	사업·개인서비스	9.7(7.0)	6.0(5.1)	8.1(6.6)	-3.2(1.1)	7.3(6.0)	4.9(3.5)
	전기·운수·금융	(5.4)	(3.7)	(3.8)	(-0.4)	(-0.3)	(4.5)
직 업 별	전문기술직	9.9(8.5)	7.9(5.8)	4.3(4.5)	1.4(1.3)	2.3(3.4)	1.3(1.8)
	사무직	5.3(3.2)	3.4(1.9)	3.5(0.2)	-16.9(-0.6)	-2.1(-8.2)	8.2(6.3)
	서비스·판매직	6.2(4.1)	6.0(4.5)	6.0(3.8)	-5.2(-2.7)	3.3(1.8)	5.6(4.5)
	농림어업직	-7.0(-6.2)	-2.1(-2.6)	-0.9(-2.0)	2.8(4.0)	-8.1(-6.2)	-1.8(-2.8)
	기능·기계조작*	-5.1(2.5)	-2.7(0.1)	-5.2(-0.1)	-13.2(-12.5)	5.5(6.2)	0.5(5.8)
	단순근로	5.0	-0.6	1.8	-10.2	15.5	8.6

주 : ()는 전체 취업자수의 변화율임.

* 전체()는 기능·기계조작·단순근로의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8) 남성의 경우 1990년 56.6%(605만 8,000명)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1년 69.0%(860만 3,000명)로 늘어났다.

9) 여성의 비중은 50.0%(254만 7,000명)이며 2001년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41.6%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 여성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107만 7,000명(51.7%), 사업·개인서비스업(공공서비스 포함)에서 135만 4,000명(119.3%)이 증가하였다.

11) 교육년수로 환산(초졸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 석사는 18년, 박사는 21년, 미졸업의 경우 교육년수의 1/2을 합산).



57.1%가 여성이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집중화 현상은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도 나타나,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분의 4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서비스산업 집중화 현상은 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1990년대 여성 노동시장의 한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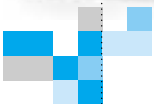
2003년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OES조사」의 3차년도 원자료에 의한 산업 대분류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9-9>에 의하면 여성은 도매 및 소매업에 가장 많이 취업하여 19.6%가 종사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109.0만원으로 여성평균에 못 미치며, 평균학력¹⁰⁾ 10.7년, 평균연령 43.1세, 평균근속년수 6.3년, 평균경력년수 7.0년, 주당작업시간은 61.3시간으로 장시간근로에 속하며 임금근로자 비율은 36.4%이고 소규모 사업체가 87.4%, 여성비율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전체 여성 근로자의 34.4%가 집중되어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여성비율도 68.7%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산업 특성상 불안정한 취업이 많은 곳으로 여성들의 취업상태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가사 서비스업(9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및 임업 등인 반면에 광업, 건설업, 운수업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는 남성보다 취업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사자의 비율은 광업이 가장 낮고, 건설업의 경우 여성비율이 6.9%로 가장 낮다.

평균임금이 44.5만원으로 가장 낮은 농업 및 임업의 경우 평균학력이 4.8년이고 평균연령은 61.0세, 평균근속년수 및 평균경력년수가 30년 이상이며 거의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임금이 163.7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종사자의 비율은 4.0%이며, 평균학력은 12.8년으로 여성평균 이상이고 남녀의 비율이 같으며 주당작업시간은 44.6시간으로 평균근로시간보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임금근로자가 대부분(91.9)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나. 직업별 취업자 분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학력화 및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1994년 이후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수 및 취업자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¹²⁾ 1994년에 306만 9,000명이었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수는



〈표 9-9〉 산업별 여성 고용구조 : 2003

산업 대분류	종사 자수 (명)	평균 임금 (만원)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평균 경력 년수	주당 작업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사업체규모비율		
										소	중	대
농업 및 임업	1,095,733 (12.0)	44.5	4.8	61.0	53.7	33.6	34.3	48.6	4.1	99.8	0.1	0.1
어업	18,915 (0.2)	115.9	6.2	55.2	26.6	20.2	20.2	45.8	24.6	100.0		
광업	1,261 (0.0)	110.2	12.4	37.6	7.4	4.7	4.7	55.0	68.3	31.7	68.3	
제조업	1,357,348 (14.8)	95.9	10.5	41.4	32.0	5.1	6.1	51.8	79.2	64.8	25.9	9.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798 (0.1)	141.5	12.8	35.3	14.0	7.6	8.5	44.1	100.0	24.9	58.6	16.5
건설업	126,03 (1.4)	131.7	11.1	40.2	6.9	5.3	6.3	48.4	79.4	84.6	11.9	3.6
도매 및 소매업	1,801,040 (19.6)	109.0	10.7	43.1	47.1	6.3	7.0	61.3	36.4	87.4	8.2	4.4
숙박 및 음식점업	1,360,804 (14.8)	110.3	10.1	44.7	68.7	3.9	5.0	63.0	43.3	96.5	2.8	0.6
운수업	92,095 (1.0)	129.0	12.2	36.8	8.5	4.3	5.2	49.7	89.2	54.4	30.0	15.6
통신업	55,783 (0.6)	142.1	13.6	32.7	23.7	3.7	5.0	47.3	96.7	38.5	47.7	13.7
금융 및 보험업	368,824 (4.0)	163.7	12.8	36.9	50.0	5.0	6.0	44.6	91.9	42.0	45.9	12.1
부동산 및 임대업	141,590 (1.5)	113.8	11.5	43.4	31.7	3.6	4.2	52.2	53.7	93.7	5.7	0.6
사업서비스업	434,657 (4.7)	117.4	11.7	38.5	31.4	3.5	4.5	46.9	91.1	75.4	18.1	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7,480 (1.9)	128.5	12.1	40.1	23.2	5.1	6.5	44.1	99.5	42.2	30.6	27.2
교육 서비스업	904,307 (9.9)	153.7	15.2	35.6	61.2	4.4	7.3	39.6	86.8	53.9	42.4	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98,656 (4.3)	139.0	13.7	33.3	72.7	4.2	5.9	50.4	93.3	62.0	22.4	15.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49,098 (1.6)	135.3	13.0	35.2	34.2	3.4	4.3	50.6	67.2	74.0	16.5	9.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61,017 (5.0)	114.5	10.9	42.9	45.2	6.9	9.7	58.9	30.9	95.1	4.4	0.5
가사 서비스업	204,802 (2.2)	71.9	8.4	51.6	97.1	4.4	4.9	44.9	82.3	99.3	0.5	0.3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외국공관	6,717 (0.1)	139.6	12.8	37.9	30.5	6.7	8.2	42.2	100.0	32.6	45.4	22.0
여성전체	9,167,008 (100.0)	115.8	10.7	43.4	40.8	8.4	9.7	53.1	56.5	79.1	15.7	5.2
전 체	22,451,000	165.9	11.7	43.7	40.8	9.0	10.8	54.9	60.0	72.9	18.4	8.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2000년 393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의 증가는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1994년의 10.4%에서 2000년에는 2.2%포인트 늘어난 12.6%에 달하였다. 그러나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고임금·고생산성의 대표적 직종으로 간주되는 이들 직종에서 여성의 고용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질적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³⁾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농림어업직, 사무직 및 기능·기계조작·단순근로 분야의 취업자는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외환위기 과정에서 사무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근로직의 일자리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9-10>. 사무직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시차를 가지고 발생함에 따라 1998년보다 1999년에 더욱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사무직 여성 근로자는 1998년 전년대비 16.9% 감소한 반면, 1999년에는 전년대비 2.1%만이 감소하였다<표 9-8 참조>.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 초기에는 사무직의 감소가 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남성 사무직은 1999년에 들어서야 집중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황이

<표 9-10> 직업별 취업자수 및 비중 : 여성

(단위 : 천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839 (10.4)	922 (11.2)	955 (11.7)	1,038 (12.0)	1,053 (13.0)	1,077 (13.0)	1,091 (12.6)
사무직	1,217 (15.1)	1,281 (15.5)	1,325 (15.6)	1,372 (15.8)	1,140 (14.1)	1,116 (13.4)	1,208 (13.9)
서비스·판매직	2,494 (31.0)	2,648 (32.1)	2,806 (33.1)	2,974 (34.2)	2,818 (34.9)	2,912 (35.1)	3,074 (35.5)
농림어업직	1,193 (14.8)	1,110 (13.4)	1,087 (12.8)	1,077 (12.4)	1,107 (13.7)	1,017 (12.2)	999 (11.5)
기능·기계조작· 단순근로	2,298 (28.6)	2,296 (27.8)	2,259 (26.7)	2,224 (25.6)	1,966 (24.3)	2,182 (26.3)	2,296 (26.5)

주 : () 안의 값은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12)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통계청 1993년도 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대분류 4, 서비스·판매직은 대분류 5, 농림어업직은 대분류 6, 그리고 기능·기계조작·단순근로는 대분류 7, 8, 9를 의미한다.

13) 1993~99년의 6년 동안 남성의 경우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취업자 증가 42만 1,000명의 175.5%에 해당하는 739천 명의 취업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성은 취업자 증가 53만 1,000명의 41.6%만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확대에 이어졌다. 또한 외환위기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1993~97년의 4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음.

어려울수록 여성이 우선적으로 희생됨을 볼 수 있는 한 예이다.

2003년 여성의 직업별¹⁴⁾ 취업구조를 「OES조사」의 3차년도 원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9-11). 먼저 여성의 진출이 0.3%로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동시에 여성 비율 또한 6.8%로 저조한 관리직은 평균임금이 293.3만원으로 가장 높고, 평균학력은 14.7년으로 고학력이며 평균연령은 42.9세, 평균근속년수 6.1년, 평균경력년수 10.9년, 주당근로시간 51.7시간, 임금근로자 비율은 56.1%이고 64.1%가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고학력 고임금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영업 및 판매 관련직(19.1%)과 음식 서비스 관련직(14.1%)은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나 역으로 소위 경력이 오래될수록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의 확대가 고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 서비스 관련직은 평균임금 101.7만원, 평균학력이 9.9년으로 여성평균 이하이며 평균근속년수가 3.8년, 평균근속년수는 4.9년이고 주당작업시간은 60.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장시간에 속하는 여성이 집중되어있는 직종이다. 평균임금이 49.1만원으로 가장 낮은 농림어업 관련직은 평균학력 또한 4.9년으로 가장 낮고 평균연령은 60.6세, 평균근속년수 및 경력년수는 30년이 넘으며 임금근로의 비율이 낮고 거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고 저학력, 고연령, 저임금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균학력이 높은 교육 및 자연,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등은 평균연령이 30대 초반이며 평균임금 또한 높고 중규모 이상 사업체 비율도 높아 저연령 고학력 고임금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음식 서비스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교육 및 자연·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인 반면에 기계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재료 관련직, 관리직 등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직종분리를 엿볼 수 있다.

다.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분포

「OES조사」의 3차년도(2003년) 원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의 60.6%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단지 8.6%만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14)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만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임.



〈표 9-11〉 직업별 여성 고용구조 : 2003

산업 대분류	종사 자수 (명)	평균 임금 (만원)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평균 경력 년수	주당 작업 시간	임금 근로자 비율	사업체규모비율		
										소	중	대
관리직	28,852 (0.3)	293.3	14.7	42.9	6.8	6.1	10.9	51.7	56.1	64.1	27.8	8.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15,416 (11.1)	127.0	13.3	31.6	39.7	4.0	5.0	48.0	90.1	59.3	28.2	12.4
금융, 보험 관련직	296,043 (3.2)	173.5	12.8	38.0	52.6	5.4	6.6	44.4	90.2	45.0	44.3	10.7
교육 및 자연, 사회 과학 연구 관련직	724,749 (7.9)	162.3	15.8	35.0	62.0	4.5	7.7	38.7	84.7	52.9	43.8	3.3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20,190 (0.2)	177.5	14.2	30.4	8.6	5.0	5.5	46.7	100.0	58.2	28.8	13.0
보건, 의료 관련직	325,118 (3.5)	161.4	14.2	33.4	72.2	4.8	6.9	51.2	92.4	58.0	24.7	17.3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23,990 (2.4)	89.8	11.8	42.5	68.5	3.9	4.9	51.7	70.8	91.7	6.1	2.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85,614 (2.0)	152.7	14.9	30.9	45.2	3.7	5.0	47.9	84.0	68.9	18.5	12.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79,289 (0.9)	106.8	10.5	44.6	5.1	5.4	6.2	46.4	65.5	86.8	9.4	3.8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752,008 (19.1)	112.7	10.8	43.5	47.3	6.2	6.9	62.9	30.3	87.6	8.2	4.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66,577 (5.1)	76.4	7.7	52.5	47.0	4.4	5.1	44.1	84.8	81.6	14.0	4.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405,472 (4.4)	128.0	11.2	41.3	55.0	6.6	9.3	62.2	29.0	93.5	4.9	1.6
음식 서비스 관련직	1,290,801 (14.1)	101.7	9.9	45.1	75.7	3.8	4.9	60.8	51.2	94.3	4.6	1.0
건설 관련직	78,739 (0.9)	141.9	9.8	44.5	5.7	6.3	7.1	47.8	86.9	84.8	9.8	5.4
기계 관련직	33,582 (0.4)	108.2	10.3	43.3	3.7	5.3	5.6	53.1	84.4	53.2	33.8	13.0
재료 관련직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25,646 (0.3)	100.2	9.5	45.2	6.7	5.1	5.6	50.7	91.5	44.3	41.8	13.9
화학관련직	31,949 (0.3)	101.5	10.5	39.5	19.9	4.6	5.1	52.0	89.1	47.6	46.9	5.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352,743 (3.8)	91.1	9.6	44.8	64.6	7.3	9.7	54.8	62.5	83.2	13.6	3.2
전기, 전자 관련직	153,107 (1.7)	87.4	11.4	37.6	22.2	3.1	3.4	51.7	96.4	40.7	40.7	18.6
정보통신 관련직	39,901 (0.4)	202.0	15.3	31.1	11.0	4.3	5.6	48.5	95.6	39.7	39.5	20.8
식품가공 관련직	164,030 (1.8)	82.5	8.6	48.8	52.6	7.6	8.1	56.8	37.5	80.6	14.7	4.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333,514 (3.6)	65.5	9.5	45.1	46.9	3.8	4.4	49.0	87.9	73.4	22.2	4.5
농림어업 관련직	1,139,678 (12.4)	49.1	4.9	60.6	52.6	32.7	33.4	48.6	5.8	99.3	0.3	0.4
여성전체	9,167,008 (100.0)	115.8	10.7	43.4	40.8	8.4	9.7	53.1	56.5	79.1	15.7	5.2
전 체	22451000	165.9	11.7	43.7	40.8	9.0	10.8	54.9	60.2	72.9	18.4	8.6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로 높아 여성 전체 취업자의 67.9%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79.0%,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규모 사업장은 15.8%,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5.2%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상황이고<표 9-12> 법에서 정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9-12〉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분포 : 2003

(단위 : 명, %)

		여 성		전 체
사 업 장 규 모	소	1-4인	5,280,613 (58.3)	11,151,068 (50.2)
		5-9인	868,615 (9.6)	2,315,507 (10.4)
		10-29인	1,006,239 (11.1)	2,732,793 (12.3)
	중	30-49인	494,465 (5.5)	1,320,467 (5.9)
		50-99인	517,966 (5.7)	1,372,743 (6.2)
		100-299인	411,953 (4.6)	1,395,253 (6.3)
	대	300-499인	139,564 (1.5)	483,143 (2.2)
		500-999인	124,107 (1.4)	454,292 (2.0)
		1,000인 이상	208,164 (2.3)	981,219 (4.4)

주 : () 안의 값은 해당 계층의 비중(%)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1980년대 초반에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이는 당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였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농촌인구의 이농현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그 비중이 37%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및 폐업·도산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에 여성 자영업주의 비중은 19~2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절대수는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계속 증가하여 왔다(류재우·최호영, 2000). 특히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한 비농림어업 부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92년의 0.29에서 2001년 0.31로 다소 증가하였다. 비농림어업 부문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여성보



다 남성이 주도하였으며, 여성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990년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995년까지 계속 상승하여 1995년도에 42.4%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임시근로자 비중의 증가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전까지 1990년대에 걸쳐 전체 근로자 대비 1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급증하여 14%대 선을 넘어섰고, 2001년 다시 감소하여 13.2%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정규근로자가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대 전반에는 하락하는 추세로, 1990년에 62.3%이던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5년 뒤인 1995년에는 57.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2000년에는

〈표 9-1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비중의 추이

(단위 : %)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
1980	60.8(52.8)	23.3(34.0)	37.4(18.8)	39.2(47.2)	30.9(37.7)		8.3(9.5)
1985	51.8(45.9)	21.3(31.3)	30.6(14.6)	48.2(54.1)	37.2(44.8)		10.9(9.3)
1990	43.2(39.5)	18.7(28.0)	24.5(11.4)	56.8(60.5)	21.4(32.8)	22.5(17.5)	12.9(10.2)
1991	42.5(38.9)	18.9(28.0)	23.7(10.9)	57.5(61.1)	22.5(33.7)	23.1(17.5)	11.8(9.8)
1992	42.5(39.0)	19.6(28.5)	22.9(10.5)	57.5(61.0)	23.7(34.8)	22.9(16.9)	10.9(9.3)
1993	42.6(39.0)	18.8(28.2)	23.8(10.8)	57.4(61.0)	24.8(35.8)	22.3(16.2)	10.3(8.9)
1994	41.5(38.1)	18.8(27.8)	22.7(10.2)	58.5(61.9)	24.6(35.8)	23.9(17.2)	10.0(8.9)
1995	40.9(37.4)	19.6(27.9)	21.3(9.6)	59.1(62.6)	25.1(36.4)	24.1(17.4)	9.9(8.9)
1996	40.5(37.0)	19.9(27.9)	20.6(9.3)	59.5(62.8)	24.2(35.6)	25.7(18.5)	9.6(8.7)
1997	40.2(37.3)	20.5(28.3)	19.7(9.0)	59.8(62.7)	22.7(33.9)	27.0(19.8)	10.1(9.0)
1998	40.0(39.0)	19.5(28.9)	22.5(10.1)	58.0(61.0)	19.8(23.3)	27.8(20.0)	10.5(8.7)
1999	40.4(38.3)	20.0(28.8)	20.3(9.5)	59.6(61.7)	18.2(29.8)	27.2(20.6)	14.3(11.3)
2000	39.2(37.6)	19.7(28.5)	19.5(9.1)	60.8(62.4)	18.4(29.7)	28.2(21.4)	14.2(11.3)
2001	38.5(37.6)	20.1(28.9)	18.4(8.7)	61.5(62.4)	19.7(30.4)	28.5(21.5)	13.2(10.5)

주 : 1. 1989년부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구분되었음.

2. ()는 전체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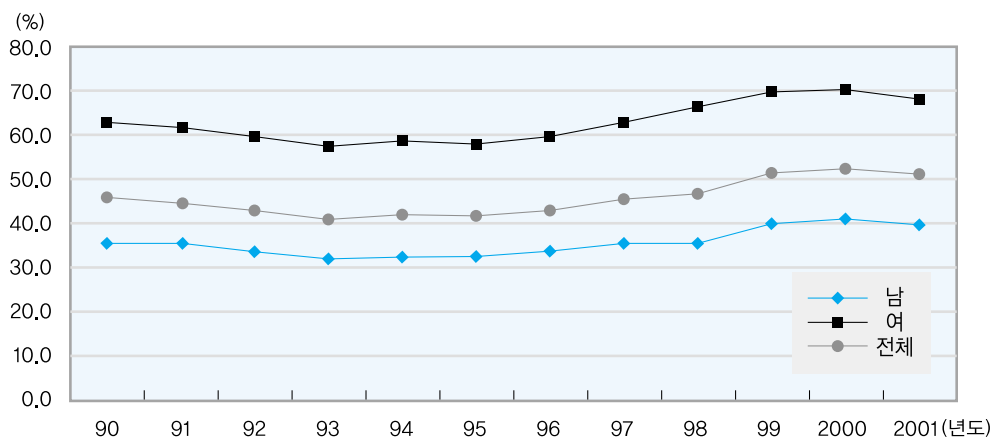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69.7%까지 상승하였고, 2001년에는 67.8%에 달한다<그림 9-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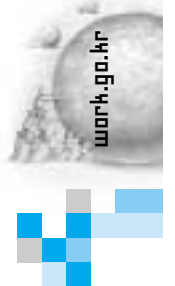
일자리의 증가 또는 창출이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에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의 7년 동안 여성 임금근로자는 100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27만 1,000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된 임금근로자들 중 남성은 64.4%가 상용직으로 취업하였으나 여성은 반대로 60.7%가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2001년의 경우 여성 상용임금근로자는 175만 6,000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19.7%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0년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자의 증가가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여성 고용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7>에서 보면 1990년대 초기에는 임시·일용 등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하락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2001년도 여성 임금근로자의 67.8%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은 여성의 경제적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증명한다. 이들 비정규직은 기업의 탈법적 행위로 인해 사회보험이나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일쑤이다.

<그림 9-7>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과 그 추이



한편 <표 9-14>는 「OES조사」의 3차년도 원자료(2003)에 의한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연령대별·학력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 임금근로 중에서도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대 초반의 경우 96.5%가 임



금근로자이고, 특히 20대 후반은 72.6%가 정규직으로 그 비중이 높지만 40대 이상의 취업자들은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60세 이상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7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절반 이상으로 (52.5%), 30대의 44.0%와 40대의 27.4%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여성 취업자의 36.9%를 점유하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들은 대부분 비임금근로자이며,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도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은 10~20%정도에 그친다. 학력의 상승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 그 중에서도 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그러나 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 여성은 남성보다 정규직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그림 9-8). 반면 비정규직은 여성 19.3%, 남성 6.5%로 성별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 고용의 질(quality)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표 9-14〉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비중(연령대별·학력별 분포) : 200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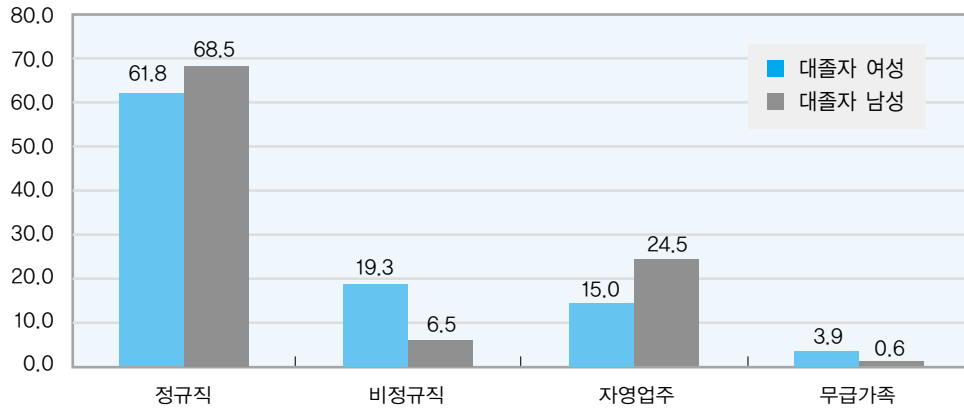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정규직	비정규직
연령 별	15~19세	5.6	3.4	2.2	94.4	27.2	67.2
	20~24세	3.5	2.5	1.1	96.5	69.1	27.3
	25~29세	8.9	5.9	3.0	91.1	72.6	18.5
	30~29세	32.4	18.3	14.2	67.6	44.0	23.6
	40~49세	50.3	27.4	22.9	49.7	27.4	22.3
	50~59세	58.0	29.3	28.8	42.0	19.6	22.4
	60세 이상	77.0	35.3	41.7	23.0	5.7	17.3
학 력 별	초 졸	68.3	29.9	38.4	31.7	10.5	21.2
	중 졸	56.7	28.2	28.5	43.3	20.5	22.7
	고 졸	42.2	23.0	19.1	57.8	33.9	23.9
	전문대졸	13.8	9.5	4.3	86.2	67.2	18.9
	대졸이상	18.9	15.0	3.9	81.1	61.8	19.3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마. 여성 취업자의 근로조건

2003년도 「OES조사」원자료를 통하여 여성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표 9-15〉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53.1시간이며,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

〈그림 9-8〉 대졸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주로 62.7시간이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자(60.7), 무급가족종사자(57.6) 순으로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12.7시간가량 길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50.3시간, 비정규직은 44.9시간으로 임금근로자간의 노동시간 차이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의 차이만큼 크지 않았다.

전체 취업자 중 53.7%가 주당 49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4.0%가 35~4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위 시간제¹⁵⁾ 노동자로 불리우는 주당 35시간미만 노동은 전체 취업자의 12.2%를 차지한다. 35시간미만 노동자로는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35~48시간은 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49시간 이상의 경우는 고용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115.8만원으로 전체 평균임금의 69.8%수준이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용주의 임금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비정규직의 경우 87.8만원으로 여성 평균임금의 75.7%에 미친다. 평균임금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표 9-16〉,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고 같은 학력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속경력에 따른 상승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성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 및 판매관련직(112.7) 및 여성비율이 높은 음식 서비스관

15) 흔히 35시간을 기준으로 35시간 미만 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주당 3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상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로, 주당 3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가진 시간제 근로자는 상근제 근로자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 ILO는 한 작업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균노동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에 대해 시간제 노동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평균노동시간이 50시간일 경우 49시간 노동자도 시간제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기준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을 육박하는 우리나라 노동조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표 9-15〉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평균임금 : 2003

(단위 : 시간, %, 명, 만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평균노동시간	62.7	60.7	57.6	50.3	44.9	53.1
	100.0 (246,428)	100.0 (1,823,292)	100.0 (1,892,704)	100.0 (3,149,619)	100.0 (1,989,898)	100.0 (9,101,941)
35시간미만	5.4	12.9	12.4	4.2	24.9	12.2 (1,112,230)
35~48시간	19.0	15.6	19.9	52.1	37.7	34.0 (3,098,346)
49시간 이상	75.6	71.4	67.8	43.7	37.3	53.7 (4,891,366)
평균임금	212.9	102.2	—	134.0	87.8	115.8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표 9-16〉 연령별, 학력별 평균임금 : 2003

(단위 : 만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초 졸 이 하	100.0	94.3	97.6	91.7	83.4	53.6	71.6
중 졸	39.9	86.0	87.3	98.3	97.6	83.9	95.8
고 졸	61.5	101.7	109.4	116.6	117.2	99.3	110.9
전 문 대 졸	49.3	107.1	136.4	163.5	200.5	74.9	121.7
대 졸	42.9	131.6	171.1	201.9	210.7	181.8	164.0
대 졸 이 상		164.0	191.8	267.5	292.1	372.9	217.8
모름/무응답		124.1	110.4	126.9	112.8	64.1	109.7
전 체	58.0	114.4	132.8	126.0	106.8	63.1	115.9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3차 OES조사』, 원자료.

련직(101.7)의 평균임금은 여성평균에 못 미치며, 가장 임금이 높은 관리직(293.3)은 그 종사비율이 미미하다. 업종별의 경우도 종사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109.0),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가사서비스업(71.9)의 평균임금은 여성평균 이하이고, 최고 임금의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종사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9, 9-11참조).

4.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가. 성별 직종분리

성별 직종분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직업분포가 매우 상이하어 상당수의 직업이 남성지배직종과 여성지배직종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¹⁶⁾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은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능력개발이나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해 있다. 이에 따라 남녀 직종분리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남녀 직종분리현상을 측정하는 지표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남녀 직종분리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는 단칸지수로 잘 알려진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¹⁷⁾, 남녀 비율지표(sex ratio index; SR),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으나, 상이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종 직종분리 지표를 산정할때 직종을 여성직종과 남성직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이 때 여성직종이란 특정 직종의 여성비율이 전체취업자 중에서의 여성비율보다 높은 직종을 말한다. 즉,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특정 직종에서 여성이 과대대표되어 있으면 해당 직종을 여성직종이라고 한다.

〈그림 9-9〉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 상이지수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¹⁸⁾ 우선 2001년 현재의 상이지수는 56.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의 직업분포가 완전히 같아지기 위해서는 56%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수경, 2003).

1974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중에 나타난 성별 직종분리 추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상이지수가 점차 증가하여 이 기간 중 성별 직종분리가 점차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⁹⁾

16) 고용분리(employment segregation)현상은,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기업분리(enterprise segregation), 부분격리(partial exclusion)를 포괄하며 직종분리는 직종 및 업종별로 남녀근로자가 격리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17) 상이지수 $(ID) = \frac{1}{2} \sum_{j=1}^n \left| \frac{F_j}{F} - \frac{M_j}{M} \right|$ 여기서 F, M은 각각 여성과 남성근로자를 나타낸다.

상이지수의 범위는 0~100인데, 이 지수가 '0'이면 남녀의 직종분포가 동일하지 때문에 남녀간 성분리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100'이면 남녀의 직종분포가 완전히 달라서, 남녀간의 직종분리가 가장 심함을 나타낸다. 상이지수는 직업의 구분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 예컨대 직업을 대분류로 나눌 경우 남녀간 직업분포의 차이가 뭉뚱그려져 성별차이가 덜 드러나지만 직업 구분이 세분화되면 될 수록 직업별로 여성과 남성의 구성이 더 큰 편차를 갖게 되므로 상이지수는 더 큰 값을 갖게 된다.

18) 직업의 구분에는 해당 연도가 채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범주가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직업분류체계는 1993년과 2000년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전후하여 지수에 불연속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 이는 80년대 초반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 취업인구의 대다수가 일부 노동집약적 생산직종에 편중되었던 사실은 반영하는 것이고 반면에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변동폭이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이지수의 감소세는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성별 직종분리의 완화는 성별 분리가 확연하던 전통적인 직업들이 쇠퇴하고 서비스 부문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는 등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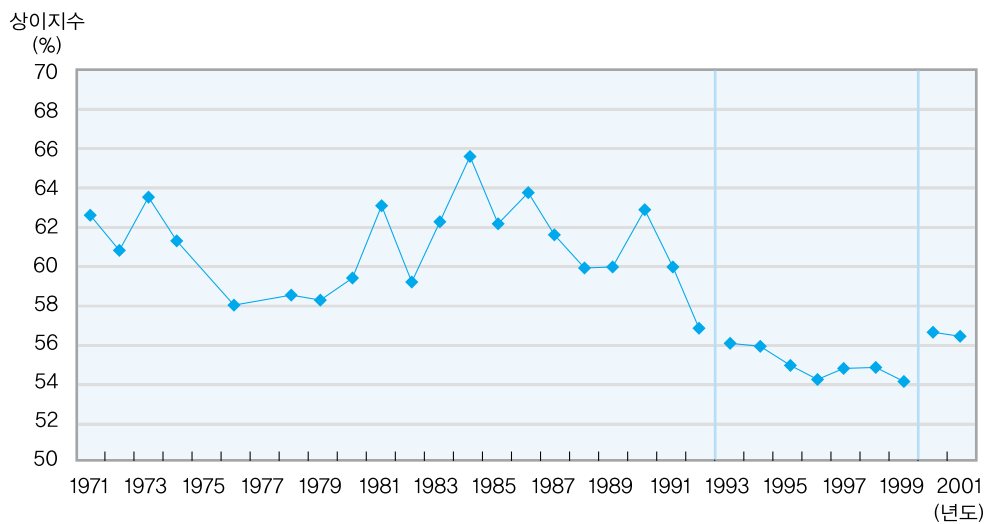
〈표 9-17〉 우리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추이 : 1971~2001

(단위 : %)

	1971	1976	1981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상이지수	62.5	57.8	63.0	63.7	61.5	59.9	60.0	62.7	59.9	56.7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이지수	55.9	55.8	54.7	54.0	54.6	54.6	53.8	56.4	56.2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9-9〉 우리나라 성별 직종분리 추이 : 1971~2001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1993년과 2000년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 전후에 시계열상 단절이 존재하며, 1975년과 1977년은 원자료가 없어 소분류 차원에서 상이지수를 구할 수 없음.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우리나라도 남녀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S조사』원자료를 통해 2001년 이후를 기준으로 주요 여성직종을 보면 ‘음식서비스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농림어업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등이다(표 9-18).

나.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난 20여 년간 여성노동시장에서의 뚜렷한 특징은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과 함께 수반된 여성의 상대적 지위 상승이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여성의 임금

〈표 9-18〉 연도별 여성직종들의 여성비율 변화 : 2001~2003

(단위 : %)

직업 중 분류	2001	2002	2003
음식 서비스 관련직	75.4	77.2	75.7
보건 의료 관련직	71.6	71.0	72.2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6.9	63.1	68.5
섬유 및 의복 관련직	64.9	64.2	64.6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65.1	63.1	62.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57.9	56.5	55.0
금융, 보험 관련직	55.5	54.7	52.6
농림어업 관련직	51.4	51.7	52.6
식품가공 관련직	49.0	46.6	52.6

주 : 한국고용직업분류 23개(군인제외) 중분류중 2003년 여성비율이 50%이상인 직군만 수록.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제1,2,3차 OES조사』, 원자료.

이 빠르게 개선²⁰⁾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용상황은 그다지 양호해진 것 같지 않다.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단순직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²²⁾ 여성노동 내부의 이질적인 집단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한편에서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저숙련-저임금의 여성집중직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시장의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결되어 있다. 고숙련-고임금의 경력직에 종사하면서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은 여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애경력경로를 따라 이동해가는 반면에 경력단절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설사 이전에 경력직에 종사하였더라도 경력단절 후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을 하더라도 저숙련 직종으로의 취업이 불가피하다.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는 이처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느냐 거치느냐에 따른 생존자와 탈락자의 문제

20) 황수경,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2003), 요약정리

21) 여성의 상대임금은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1971년 44.8%, 1981년 41.7%, 1991년 54.0%, 2001년 64.5%를 기록하여 1980년대는 매년 1.2%포인트, 1990년대에는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전인1991~97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여성의 상대임금은 매년 1.4%포인트씩 매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22) 고용유연화를 통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과 주변노동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노동 전반의 고용안정성은 크게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45.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김유선, 2002).



로 파악될 수 있다.²³⁾

여성 경제활동에서 경력단절이 갖는 문제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경력 단절을 거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과거 단순 비경력직에 국한되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조직 문화, 여성의 정보 접근성에서의 어려움,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 낮은 승진 가능성, 가정과 병립할 수 없는 직장문화 등은 고학력 여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탈의 유혹을 받게 한다. 이 같은 풍토가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인력의 누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여성노동력의 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집중현상이 확연하였다. 그러나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 수반된 고속련·고부가가치 노동으로의 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업부문 내에서도 전기·운수·창고·금융업과 같은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에서의 여성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단순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취업이 여성고용의 증대를 주도하였다. 여성노동력의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대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 부문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부가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와 고학력화 과정에서 ‘깨끗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고학력 여성노동력이 시장수요 이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른 일시적인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노동력의 단순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집중은 1990년대 여성의 취업 증대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주도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근로시간, 작업환경, 이동거리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관리와 작업규율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작업장이 주거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블루칼라직보다는 작업이나 근로시간 운용에서 재량이 많고 작업장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이트칼라직을 더 선호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고용여건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제약하에서의 취업선택은 시간제나 탄력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한 고용형태로 몰리게 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더욱이 30대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미숙련 노동력이 대부분이어서 상당 수준까지 비정규화가 진전되어 있는 단순직, 비경력직으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23)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저연령-고학력-고생산성-고임금-장기근속의 고소득계층과 고연령-저학력-저생산성-저임금-단기근속의 저소득계층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들이 제조업의 생산직을 기피하고 사무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도 1990년대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미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의 추세는 한계고용(경비, 청소 등 주변업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무직으로까지 확산되었는데, 상용고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생산직과는 달리 상당수의 단순사무직무가 사무자동화에 힘입어 비정규고용으로 대체되는 추세였다. 판매서비스직의 단순직무 역시 비정규고용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노동력을 흡수하였고 그 결과 고학력 저연령층 여성의 사무직 편중은 연쇄적으로 여성의 하향취업을 초래하였다. 사무직을 선호하는 여성과잉인구가 비정규 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사무직 선호가 지속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증가하는 한 여성고용의 비정규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²⁴⁾

한편 1990년대 여성노동의 직업 구성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 결과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고숙련 분야에서 여성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로 인해 신규 진입자 및 단기근속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걸쳐 여성 장기근속자의 증가는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1981년 당시 5년 이상 근속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에는 18%로, 2001년에는 다시 32%까지 급상승하였다. 여성이 경력년수에서도 유사한 증가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직업별로도 고위관리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같은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1993년 9.3%에서 1999년 20.2%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1970년대 40% 수준에 불과하던 여성의 상대임금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01년 현재 65%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고임금계층의 성장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취업자들 내부에서의 임금격차,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에서는 계층간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 내부에서의 소득격차 확대는 고학력 여성인력이 고숙련·경력직으로 진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고숙련·경력직으로의 활로를 개척

24)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증가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에서는 여성노동시장을 단순·비경력직으로 국한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비정규화를 보는 시각도 보다 종합적인 필요가 있다. 고학력 여성의 사무직 편중이나 기업의 고용관행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한 여성노동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여전히 유흥인력으로 남아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고용형태의 존재가 일정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함으로써 여성노동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에는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대부분은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근로, 기능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소규모 영세기업근무 등으로, 법에서 정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용형태의 다양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기인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여성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업의 탈법적 행위로 인해 사회보험이나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별적대우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은 저생산성·저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무는 성별 직종분리와 함께, 여성 내부적으로도 저연령·고학력·고소득 계층과 고연령·저학력·저소득 계층으로 중층적 이중구조에 놓여있다. 즉 그 동안 여성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자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근무환경아래서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남성은 고생산성·고임금·고용안정의 상층부에, 여성은 저생산성·저임금·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놓여있어 노동시장의 성분리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인력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여성인력의 활용과 양성의 문제이다. 주어진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의 성분리 구조 해체, 성차별의 완화에 달려있고 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문제,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문제등도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절실하며 여성의 생산성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은 여성인력의 교육훈련과 직결된다. 하지만 여성고용의 질 향상 및 성별격차의 완화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기능이나 교육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여성취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보다 과감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성인력

의 효율적인 활용방안²⁵⁾과 양성이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여성이 주류가 되는 사회를 위한 준비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인력이 성장유망분야에 집중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성장유망분야인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나 첨단기술 산업,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분야에 여성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이공계 중심의 자연계열, 응용과학 및 공학 중심으로 인력을 육성하고, 인력수요 창출이 집중될 공학계에 여성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진로교육, 장학금 및 연구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성이 결여된 고학력 여성인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기회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와의 산학연계 강화 및 여학생인턴 활용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OES자료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 현황은 실업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경제활동참가율 파악이 다소 어려웠으며 차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첫째, 여성고용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여성채용목표제), 둘째, 모성보호 및 기초보육의 사회적 부담률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이탈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 셋째,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은 물론 문화·관광·환경관련 산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공공사회 서비스업 등 이른바 신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넷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일시적인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할 필요(자율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변형근로제 등), 다섯째, 과학기술분야와 같이 여성인력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요구.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남편과 가정의 주부'로 역할분담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시스템을 개편할 필요 등(황수경, 2003).

■ 참고문헌 ■

- 김유선(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홍 · 김미경(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류재우 · 최호영(2000.6),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 배무기(2003), 『노동경제학』, 경문사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최강식 · 정진화(1997),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4),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한국노동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 통계청, 『KOSIS Data Base』, <http://www.nso.go.kr>

